

부채비율 200%이하 기준이 상장기업에 미치는 영향

1999년 9월 30일 #99-383

요약

- 정부 방침에 의하면 부채비율이 200%이상인 재벌기업에 대한 여신이 올해말부터 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해 요주의이하로 분류될 전망
- '99년 상반기 기준을 기준으로 도산기업이거나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아닌 상장기업 중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기업은 113개사이며, 이들 기업의 총차입금은 약 81조원임
- 이중 회사채와 해외차입금을 제외한 국내 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 차입한 금액은 약 41조원임. 따라서 10%의 총당금을 쌓을 경우 금융권은 최대 4조1천억원의 이익이 감소될 전망임
- 이들 기업이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낮추려면 20조원의 자기자본을 증가시키던지 40조원의 부채를 감소시켜야 함
- 상장기업은 IMF이후부터 '99년 상반기까지 이미 자산재평가와 유무상증자를 통해 66조원('97년 결산기대비 1.7배 증가)의 자기자본을 증가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한 부채비율 감소가 쉽지 않을 전망임
- 그룹별로 보면 현대가 13개사로 가장 많고 LG 5개사, 쌍용 4개사순임

Quantitative Analyst

조익재 (02-768-4024)

ijcho@daewoo.securities.co.kr

비도산기업중 부채비율이 200%넘는 기업에 대한 여신은 41조원

정부에 의하면 올해 말부터 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해 부채비율이 200%이상인 재벌기업에 대한 여신이 요주의이하로 분류될 전망이다. 이러한 기준이 12월결산 상장기업에 미칠 영향을 '99년 상반기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 <표1>이다.

<표1> 부채비율 200%이상 기업의 차입금 현황 (단위 : 억원)

	① 부채비율 200%이상기업	② 도산기업	③ 워크아웃기업	④ 대우그룹	⑤ ① 집단에서 ②③④제외	⑤집단중 대형기업 (자산3천억이상)	⑤집단중 30대그룹 소속
회사수	230사	81사	29사	7사	113사	59사	48사
자산총계	2,722,641	337,595	276,957	529,293	1,578,796	1,512,812	1,404,282
부채총계	2,275,830	380,073	285,524	430,111	1,180,122	1,128,403	1,046,268
자본총계	446,811	-42,478	-8,566	99,182	398,674	384,410	358,014
단기차입금	475,050	62,800	47,722	128,566	235,963	221,476	202,052
외화단기차입금	46,465	3,751	4,715	12,546	25,453	24,117	22,132
유동성장기	239,801	16,378	22,268	55,082	146,073	140,500	129,357
유동성외화장기	18,282	491	667	5,823	11,300	10,739	10,522
사채	514,856	13,353	45,565	126,728	329,210	323,942	308,364
장기차입금	347,366	97,502	99,049	45,525	105,290	98,757	89,354
외화장기차입금	87,564	18,142	9,105	21,132	39,185	37,629	37,156
총차입금	1,563,703	186,261	214,604	355,893	816,535	784,675	729,127
-사채	514,856	13,353	45,565	126,728	329,210	323,942	308,364
-외화차입금	152,311	22,384	14,487	39,502	75,938	72,485	69,809
국내금융권차입	896,535	150,523	154,551	189,663	411,387	388,248	350,954

12월결산 비금융업소속 상장기업 540사중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업은 230사¹⁾이며, 이들 기업의 총차입금이 15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9년8월말까지 이미 도산했거나 워크아웃대상으로 지정된 기업(대우 포함)을 제외한다고 해도 총차입금은 81조원에 이른다. 이 금액에서 회사채와 외화차입금을 제거하면 국내 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 차입한 금액이 되는데 이 규모가 4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금융권이 추가적으로 안게 될 잠재 부실여신 규모가 41조원이라는 의미이며, 이에 대해 정부 방침대로10%의 총당금²⁾ 만 쌓는다고 해도 금융권은 4조1천억원의 이익이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대형기업을 중심으로 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적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규모 3천억원이상인 기업으로 제한하게 되면 잠재 부실여신은 39조원이 되며, 30대그룹 소속기업으로 제한하면 35조원이 된다.

1) 자본잠식된 회사 포함

2) 현재 금융권은 요주의여신에 대해 2%, 고정여신에 대해 20%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음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낮추려면 40조원의 부채를 줄여야

<표1>에서 ⑤ 집단에 해당하는 113사가 부채비율을 연말까지 200%이하로 낮추려면 자기자본을 약20조원을 늘리던지 40조원의 부채를 감소시켜야 한다. 그러나 IMF이후 상장기업의 부채 및 자기자본 추이를 나타낸 <표2>를 보면, 상장기업은 '97년부터 올해 반기까지 자산재평가와 증자를 통해 이미 66조원의 자기자본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력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교적 손쉬운 자산재평가를 통해 증가시킨 부문이 29조원이며, 강세장에서 유무상증자를 통해 13조원을 조달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같은 방법을 통한 자기자본 증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40조원의 부채를 차입금 상환을 통해 감소시키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가 사업전망이나 수익성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 예외를 두려는 여지를 남겨놓았으나, 이러한 정부의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실행된다면 상장기업중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은행 및 금융권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2> 12월결산 상장기업의 부채 및 자기자본 추이

(단위:억원)

	9712	9806	9812	9906
비이자지급성부채	1,208,714	1,237,520	1,263,959	1,277,848
차입금	2,421,429	2,571,019	2,546,399	2,496,911
부채총계(계)	3,630,144	3,808,539	3,810,357	3,774,759
자본금	276,464	285,017	318,012	402,572
자본잉여금	433,444	526,310	674,355	913,167
재평가적립금	205,635	268,095	414,371	494,029
이익잉여금	335,910	294,099	249,541	301,021
자본총계(계)	1,063,097	1,127,451	1,259,609	1,722,028

그룹별로 현대 13개사, LG 5개사, 쌍용4개사 등이 해당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상장기업을 그룹별로 보면 현대가 13개사로 가장 많고, LG 5개사, 쌍용 4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의 증가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현대는 약 10조6천억원, LG는 4조8천억원, 쌍용은 2조6천억원의 부채를 줄여야 부채비율을 200%이하³⁾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은 자본잠식이 아닌 기업중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을 나타낸 것이다.

³⁾기업별로 향후 유무상증자나 자산매각을 통한 차입금 상환 등의 자구노력이 예정되어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임.

<표3> 부채비율 상위기업('99년 상반기 기준)

(단위 : 억원)

	회사코드	회사명	그룹	부채비율	차입금	부채총계	자본총계
1	A06160	신화건설		2725%	1,970	2,840	104
2	A01370	코오롱상사	코오롱	1643%	9,637	13,683	833
3	A01250	쌍용	쌍용	885%	3,518	5,268	595
4	A16550	한별텔레콤		865%	266	302	35
5	A15110	중앙건설	중앙	822%	1,563	2,857	348
6	A06290	한화에너지	한화	756%	20,547	30,216	3,994
7	A25620	신우	신우	738%	2,226	2,958	401
8	A00700	한진해운	한진	731%	17,383	38,388	5,253
9	A05600	중앙제지		697%	128	262	38
10	A07860	한일이화	한일이화	667%	273	857	129
11	A08440	한솔	한솔	662%	504	1,933	292
12	A14130	한익스프레스		606%	342	572	94
13	A06440	한일건설	한일시멘트	555%	1,838	2,599	468
14	A02990	금호산업	금호	549%	25,003	34,030	6,194
15	A02540	고제		520%	460	527	101
16	A01880	삼호	대림	516%	2,214	3,673	712
17	A05880	대한해운	대한해운	512%	2,118	5,703	1,113
18	A11810	쌍용중공업	쌍용	509%	2,800	3,652	718
19	A09160	쌍용정공	쌍용	498%	440	586	118
20	A01310	풍림산업		466%	4,751	8,411	1,805
21	A03070	코오롱건설	코오롱	460%	3,450	6,780	1,474
22	A02950	두산건설	두산	436%	7,801	10,965	2,512
23	A10780	동서산업	현대	429%	1,498	2,022	472
24	A12280	영화금속		423%	238	410	97
25	A05030	부산주공	동국제강	417%	182	274	66
26	A09940	대아리드		416%	136	189	45
27	A10120	LG산전	L G	415%	30,270	35,422	8,529
28	A10100	한국프랜지	현대	413%	1,071	1,730	419
29	A04540	대한펄프		398%	3,379	4,409	1,107
30	A14900	삼보컴퓨터	삼보컴퓨터	387%	2,847	5,731	1,481
31	A02460	화성산업	화성	380%	5,145	7,303	1,923
32	A03410	쌍용양회	쌍용	372%	36,422	43,782	11,778
33	A00150	두산	두산	369%	20,203	26,100	7,066
34	A08120	북두		361%	206	274	76
35	A11330	신진피혁	신진피혁공업	360%	184	255	71
36	A06360	LG건설	L G	359%	9,634	17,852	4,968
37	A03680	한성기업	한성기업	358%	960	1,159	324
38	A27390	동양백화점		352%	1,285	2,016	573
39	A09050	대한알루미늄	현대	342%	2,995	4,700	1,373
40	A05980	성지건설		340%	1,261	2,374	698
41	A04710	한솔전자	한솔	338%	1,256	1,504	445
42	A00420	로케트전기	로케트	335%	576	1,366	408
43	A02850	영풍산업	영풍	333%	3,257	3,928	1,180
44	A35000	LG애드		331%	50	1,295	391
45	A16510	주리원	현대	325%	1,040	1,740	536
46	A00660	현대전자	현대	324%	82,299	108,993	33,608
47	A01120	LG상사	L G	314%	9,620	14,841	4,726
48	A16880	웅진출판	웅진	312%	1,613	2,426	778
49	A07280	부산스틸	동국제강	308%	274	561	182
50	A15230	대창단조		306%	342	620	202

	회사코드	회사명	그룹	부채비율	차입금	부채총계	자본총계
51	A00720	현대건설	현대	306%	52,712	67,848	22,148
52	A05900	동양고속	계성제지	302%	805	1,734	574
53	A04290	일경통산	태흥	299%	447	637	213
54	A00050	경방	경방	291%	780	1,762	605
55	A05870	대영전자	대영전자	286%	1,142	1,269	443
56	A00140	하이트맥주	하이트맥주	284%	9,773	13,978	4,926
57	A10520	현대강관	현대	283%	12,444	16,384	5,789
58	A17300	코리아데이터	두고	280%	1,887	2,408	860
59	A04140	동방	동방	277%	892	1,893	682
60	A16380	동부제강	동부	274%	15,861	19,301	7,037
61	A13890	진웅		273%	747	933	342
62	A12630	현대산업개발	현대	271%	17,372	25,675	9,466
63	A01970	신성	신성	267%	1,758	2,750	1,032
64	A01690	두산포장		266%	3,222	4,064	1,529
65	A01520	동양시멘트	동양	265%	14,600	16,768	6,334
66	A01680	대상	대상	264%	13,142	16,168	6,124
67	A10200	극동제혁		262%	154	203	77
68	A12330	현대정공	현대	261%	15,138	22,107	8,457
69	A00210	대림산업	대림	257%	16,513	25,754	10,018
70	A02610	LG전자	L G	256%	47,912	68,812	26,855
71	A08000	새한	새한	256%	11,836	16,329	6,377
72	A05960	동부건설	동부	256%	6,341	8,842	3,456
73	A01140	국보	도남	255%	132	278	109
74	A06120	SK케미칼	S K	254%	11,191	12,780	5,030
75	A08750	범양식품	범양상선	251%	575	854	340
76	A29890	LG반도체	현대	250%	37,192	40,497	16,194
77	A09760	한국컴퓨터	한국컴퓨터	249%	1,112	1,344	539
78	A04510	동양에레베이터	동양에레베이터	247%	854	1,580	639
79	A05070	새한미디어	새한	241%	5,145	5,862	2,431
80	A02420	세기상사		240%	22	56	24
81	A16090	대현		238%	839	1,297	544
82	A02780	진흥기업	진흥기업	238%	651	1,725	725
83	A04200	고려개발	대림	237%	1,173	2,473	1,043
84	A30720	동원수산		232%	671	854	367
85	A04980	성신양회	성신양회	230%	10,373	11,869	5,152
86	A04170	신세계백화점	신세계	229%	8,285	13,434	5,865
87	A11800	배명금속		229%	231	488	213
88	A06260	LG전선	L G	226%	5,524	10,403	4,598
89	A11200	현대상선	현대	223%	20,154	42,510	19,043
90	A14740	금호케미칼	금호	223%	2,217	2,826	1,268
91	A01060	중외제약	중외제약	222%	1,781	2,194	990
92	A00830	삼성물산	삼성	221%	27,450	50,133	22,715
93	A08480	KEP전자		220%	116	162	73
94	A00890	보해양조	보해	216%	883	1,370	633
95	A10140	삼성중공업	삼성	216%	25,314	40,954	18,971
96	A05380	현대자동차	현대	216%	61,000	96,468	44,752
97	A04380	삼익공업	삼익공업	214%	319	482	225
98	A11760	현대종합상사	현대	213%	5,279	8,344	3,912
99	A02250	근화제약	세양산업	213%	107	317	148
100	A18670	SK가스	S K	211%	5,274	6,898	3,265